

“한국인 81% 중국에 부정적” ...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인의 반 중국 정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7일 '연합뉴스'가 미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CEIAS)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6월 23일 사이 한국 성인 남녀 1천364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는 유럽지역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2020~2022년 세계 56개국 주민 8만여 명을 상대로 진행된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가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81%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 한국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반중 정서가 강하다. 사진=shutterstock

으로 2위인 스위스(72%)나 3위 일본(6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이다.

디플로맷은 한국에서 이처럼 반중 정서가 강한 것은 중국 발 미세먼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매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유독 한국에서만 이러한 결과도출됐다면, 실제로 미세먼지는 지난 몇 년 간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들이 중국 하면 떠올리는 단어는 '코로나19'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역사 왜곡', '더러움', '가짜', '오염' 등 부정적인 단어가 주로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반중 정서가 가장 강했다.

금리 인상에 고액 월세 급증

지난해 한국에서 월세(반전세 포함)가 100만원 이상인 아파트 임대차 거래가 급증했다.

지난 2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는 2019년 2만6,051건, 2020년 3만2,668건, 2021년에는 6만4,71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2022년 1~12월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량 41만5,445건 중 월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래는 8만 812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월세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PH129 전용면적 273㎡로 지난해 3월 보증금 4억원, 월세 4,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 한국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월세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고금리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꼽힌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금리는 6~7% 수준에 달하고 있다.

급격한 전세 가격 하락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세 가격이 급락하면서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증가하자 문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월세 선호에 따라 고액 월세의 거래량이 늘어났을 뿐 절대적인 월세 가격 자체는 전세가격 하락과 맞물려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월세 가격지수는 10월 대비 0.18% 내렸다. 월세 가격이 하락한 건 2019년 9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육아휴직 늘리고, 외국 인력 대거 도입



▲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사진=shutterstock

한국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사용 조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인력을 대거 받아들일기로 했다.

지난 2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12월까지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의 나이가 8세 이하여야 쓸 수 있는데, 연령 제한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남성 출산휴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남성의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현재 1회에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선 2023년 상반기부터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기로 했다. 연간 숙련기능전환인력 할당 총량은 2022년 2,000명에서 2023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인력 가운데 비전문인력 역시 도입 규모를 2022년 5만9,000명에서 2023년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한국 내 사업장별 취업 허용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